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보 도 자 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바랍니다.**	배포수량	총 7매
배포일시	2026. 11. 12.(목) 17:00	담당부서	학예연구실 근대미술팀
주관부서	국립현대미술관 홍보고객과	담 당 자	류한승 팀 장 TEL 02-2022-0610 배원정 학예연구사 TEL 02-3701-9574

국립현대미술관,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덕수궁관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

◇ 82일간 누적 관람객 30만 572명, 집계 이래 덕수궁관 전시 최다 관람객

- 기존 기록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2023)의 26만 1,695명 경신
- 일평균 3,666명 관람, 20대~50대 연령층 20% 안팎 분포 전 세대 아우른 전시
- SNS에서 "정말 압도적" "보기만 해도 행복했다" 관람객 호평 이어져

◇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이대원, "다시 봐야 할 화가"로 재조명

- '농원 화가' 너머, 전통 공예와 산수화의 독자적 계승에 헌신한 작업세계 환기
- 쉽게 볼 수 없었던 5미터 대작과 반사 바닥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공간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직무대리 윤태욱)이 8월 6일(목)부터 11월 8일(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한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가 누적 관람객 30만 572명을 기록**하며 덕수궁관 전시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다.

관람객 집계 이래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린 전시 중 기존 가장 많은 관람객 기록은 2023년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의 26만 1천 695명(전시 기간 130일, 일평균 2,013명)이었다.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총 82일의 전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666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9월 26일(토)에는 하루 최다인 1만 824명이 방문했다. 유료 관람객은 13만 1,248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고, 외국인 관람객도 8,726명에 이르렀다. 온라인으로 예매한 회

원 관람객(2만 1,728명)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40대(25.1%), 50대(23.9%), 30대(22.7%), 20대(16.6%) 순으로 고르게 분포해 폭넓은 세대가 전시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대원(1921~2005)의 첫 대규모 회고전이다.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 작가가 수집한 고미술품을 통해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형 〈농원〉 연작까지 약 70년의 화업을 총체적으로 조망했다.

이대원은 한국 근현대 화단의 중심에 있었지만, '농원을 그린 화가'라는 비교적 단선적인 평가아래 그동안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이번 전시는 이대원을 '다시 봐야 할 화가'로 불러내 그의 미술사적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의 발길은 잊혀 있던 근현대 화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전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기억되어 온 이대원의 밝은 화면을 작가의 낙천적 기질이 아닌, 자수·나전·화각 등 전통 공예와 동양화의 조형 원리를 오래 연구해 얻은 회화적 성취로 새롭게 조명했다. 아울러 1959년부터 약 8년간 한국 최초의 상업 화랑 격인 반도화랑을 운영하고, 홍익대학교 총장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지내며 한국 미술계의 기반을 다진 '문화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공개된 작품과 자료도 눈길을 끌었다. 이대원과 장욱진, 유영국을 가르친 미술교사 사토 구니오의 희귀 회화 〈설정(雪庭)〉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고, 그동안 〈북한산〉(1938)으로 알려져 온 초기작의 원제가 〈가을 산〉(1938)이었음을 밝혔다. 작가가 소장했던 자수·나전·화각·목가구와 변관식의 산수화를 회화와 나란히 놓아, 전통의 조형 원리가 이대원의 화면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특히, 관람객의 발길을 가장 오래 붙잡은 4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에서는 5미터가 넘는 대작 〈과수원〉, '사계절' 연작, 〈인왕산〉 등 말년의 대형 회화를 바닥 반사면과 함께 구성해, 관람객이 농원 한가운데 있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도록 했다.

미술계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김이순 미술사학자는 『월간미술』 2026년 10월호에서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고전에 그치지 않는다”며, “전통 공예품과 산수화의 조형 원리가 색점, 색선, 색면의 현대적 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농원〉 연작이 단순한 재현이나 시대와 유리된 목가적·향토적 풍경이 아니었음을 밝혔다”고 평했다. 관람객의 호평도 이어졌다. “강력 추천하는 여름 전시”,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전시”, “모네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색채, 마음이 환해진다” 등 관람객들 역시 눈앞에 펼쳐진 대작의 압도적인 규모와 찬란한 색채에 감탄하는 한편, 이대원이라는 화가를 새롭게 이해하고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태욱 국립현대미술관장 직무대리는 “이대원의 70년 화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 이번 전시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관람객들이 ‘행복한 화가’라는 익숙한 이미지 너머에서 한국적인 현대 회화를 평생 탐구한 이대원의 진면목을 발견해 주신 것이 더욱 의미 있다. 앞으로도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소개하는 전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일반 전화 문의: 02-2022-060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 배원정 학예연구사(02-3701-9574)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다운로드(이미지)**
- **웹하드 주소: http://webhard.mmca.go.kr**
- **아이디: mmcapr0**
- **암호: Mpr2025!**
- **상단아이콘 [전용탐색기/웹탐색기/백업] 중 [웹탐색기] 클릭→ [Guest 폴더] → [2026 보도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덕수궁관 역대 최다 관람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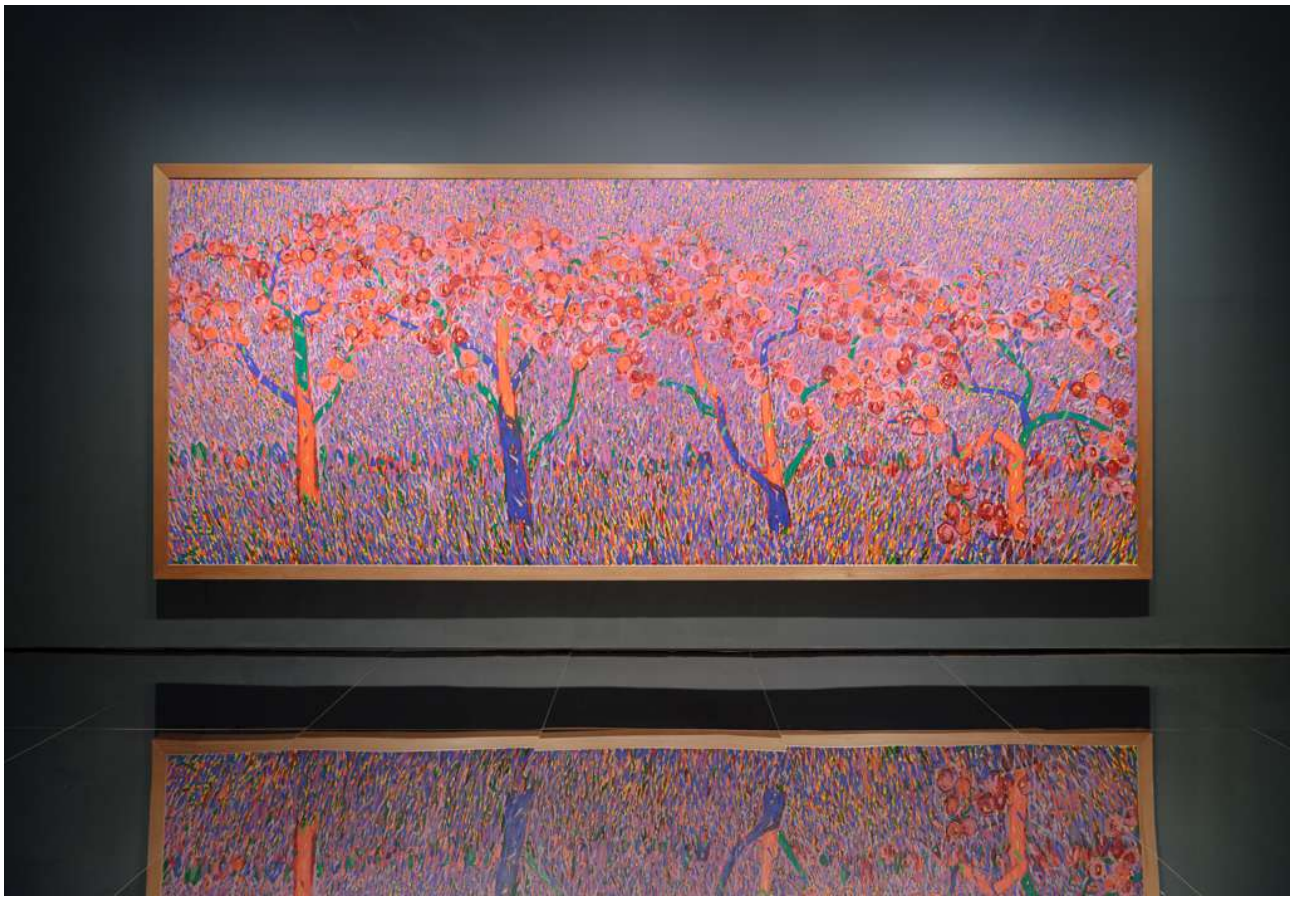
[붙 임] 1. 전시 전경
2. 관람 모습

[붙 임] 1,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붙 임] 2. 관람 모습






이 대 원: 당신을
(1921-2005) 슬프게 하는
Lee Dai Won: 것은 하나도 없다
Nothing Here Makes You Sad
2026.8.6.–11.8.
MUSEUM
MANNER

